

임진왜란 포로의 일본 체험 실기 고찰*

김미선**

<차 례>

1. 머리말
2. 일본 탐색과 계책 제시-姜沆의 『看羊錄』
3.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탈출-魯認의 『錦溪日記』
4. 그리움과 눈물의 일본 체류-鄭希得의 『月峯海上錄』
5. 맺음말

<국문초록>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치러진 임진왜란은 국토를 피폐화 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임진왜란 경험은 어떤 것이든 충격적이며 비극적이겠지만, 일본에 포로로 잡혀 간 사람의 경우에는 그 아픔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경우에는 생존에 대한 것 뿐 만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실기인 강항의 『간양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을 살펴보았다. 세 작품은 임진왜란과 포로로써의 일본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세 명의 작자는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포로로써 일본을 체험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호남의 문인으로 일본의 2차 침입이 있었던 정유년에 잡혀 가, 비슷한 시기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작품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다녀온 귀중한 자료로, 전

* 이 논문은 2009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학술연구지원사업비)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AKS-2009).

** 전남대학교

쟁포로써 해외 체험을 실기로 기록한 독특한 작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비슷한 경험을 하여 하나의 작품군을 이루지만, 각 작품은 각각의 특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저자와 일본 체험 여정, 내용상의 특징 등을 살펴서 각 작품의 기본적인 사항 및 특징, 가치를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강항은 포로라고 하여 소극적으로만 있지 않고, 일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간양록』에는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조선을 다스릴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강항과 정희득이 일본의 허락을 얻어 고국으로 온 반면, 노인의 탈출은 목숨을 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계일기』에는 탈출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조선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탈출함으로써 임진왜란에 참여한 삼국을 모두 경험하였고, 세 작품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정희득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본인의 감정에 치중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월봉해상록』에 피란을 떠나는 날부터 고향집에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기록 하여, 세 작품 중 유일하게 포로 체험과 관련한 전 과정을 볼 수가 있다.

핵심어 : 임진왜란, 포로, 실기, 강항, 노인, 정희득, 『간양록』, 『금계일기』, 『월봉해상록』

1. 머리말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치러진 임진왜란은 국토를 피폐화 시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겼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지켜봐야 했고, 포로가 되어 해외로 끌려가 다시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극한 체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록을 남기게 하였다. 사람들은 기록을 남김으로써 전쟁의 참혹함을 토로하였고, 훗날 같은 경험을 하지 않기 위한 대비책을 삼게 하였다.

문학에 있어서도 설화, 소설, 실기, 시가 등 다양한 작품이 창작되어,

전쟁이 형상화 되었다. 이 중 實記는 전쟁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났던 당시의 경험을 기록한 것이다. 본인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록한 것이기에 사실적이며, 현장성을 가지고 있다. 당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과 극한 상황에서의 감정이 서술되어 있어 상상문학과는 또 다른 문학적 가치를 갖는다.

전쟁 경험은 어떤 것이든 충격적이며 비극적이겠지만, 일본에 포로로 잡혀 간 사람의 경우에는 그 아픔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의 경우에는 생존에 대한 것 뿐 만 아니라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호남의 문인 중에 포로로 일본에 다녀온 경험을 실기 작품으로 남긴 사람들이 있다. 바로 姜沆, 魯認, 鄭慶得, 鄭希得, 鄭好仁이다. 이들은 2~30대의 젊은 나이로, 가족과 함께 피란을 떠났다가 일본으로 잡혀갔다. 모두 피란 중에 가족과 헤어지거나 죽음을 지켜보았으며, 일본에서 억류를 당하며 몇 차례 탈출을 시도한다.

임진왜란과 관련한 작품 중 실기 작품은 어떤 체험을 형상화했느냐에 따라 종군실기, 포로실기, 피란실기, 호종실기 등으로 나눈다.¹⁾ 그런데 이렇게 나누었을 때 포로실기, 그 중 포로로써 일본을 다녀온 작품은 姜沆의 『看羊錄』, 魯認의 『錦溪日記』, 鄭慶得의 『萬死錄』, 鄭希得의 『月峯海上錄』, 鄭好仁의 『丁酉避亂記』 다섯 편만이 남아 있다. 때문에 작품의 희소성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들의 실기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포로로 다녀온 사람들의 체험을 기록한 중요한 자료이다. 포로라는 상황의 특수성 속에서 바다를 건너 해외, 더구나 적국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체험하여, 독특한 장르로써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섯 작품 중 주요 작품인 강항의 『간양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희득의 『월봉해상록』²⁾을 고찰하고자 한다. 저자와 일본 체

1) 작품에 따라서 피란을 하다가 전쟁에 참여하기도 해 두 가지 이상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는 것에 무리가 없다.

2) 정희득과 정경득, 정호인은 같은 집안 사람들로서 함께 일본에 다녀와, 각자 실기를 남겼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경험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기에는 일치하는 내용이 많다. 고국으로 돌아온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작품을 수정하여 완

협 여정, 내용상의 특징 등을 살펴서 각 작품의 기본적인 사항 및 특징, 가치를 파악할 것이다.

2. 일본 탐색과 계책 제시-姜沆의 『看羊錄』

강항(1567~1618)은 1593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공조좌랑, 형조좌랑을 지냈다. 1597년에 휴가를 얻어 고향 영광에 있던 중 일본의 재침입을 맞게 된다.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군량 운반을 돕고 여러 고을에 격서를 보내 의병을 모집하였다. 그러나 적의 기세가 더욱 거세어져 영광을 공격하자 강항은 가족, 친척과 함께 두 척의 배로 피난을 떠나게 된다. 뱃사공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배와 떨어지게 된 강항 일행은 아버지의 배를 찾다가 9월 23일에 왜적에게 잡힌다. 왜적에게 잡히는 과정에서 돌아가신 어머니와 형의 신주를 잃어버리고, 이후 바다 위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보게 되고, 강제로 헤어지게 된다. 그 후 강항은 일본의 대마도 등을 경유하여 伊豫州 大津城에 유치되었다. 후에 大坂城으로, 다시 伏見城으로 이송된다. 억류되어 있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1600년 봄에 귀국을 승인받는다. 그리하여 1600년 4월 2일에 귀국길에 올라 5월 19일에 부산에 도착한다.

『간양록』은 이렇게 강항이 일본에 끌려갔다가 돌아오기까지의 체험을 기록한 것이다. 강항은 처음에 죄인이 타는 수레라는 뜻으로 『巾車錄』이라 이름하여, 본인을 죄인으로 낮췄다.³⁾ 후에 후학들이 강항과 권필의 시

성한 것이어서 당시에 서로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가장 작문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시를 남긴 정희득의 작품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세 작품 중에서 정경득의 『만사록』, 정호인의 『정유피란기』는 남겨 두고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을 볼 것이다.

3) 이 글을 당초에 『巾車錄』이라 한 것은 바로 선생이 손수 題하신 것이다. 무릇 巾車라는 것은 실로 죄인이 타는 수레인데, 선생이 마침내 이를 취하여 책 이름으로 삼으신 것은 무슨 까닭이겠는가? 대개 선생님께서 겸손하여 죄인처럼 생각하신 것이

에 있는, 蘇武의 고사를 인용하여 쓴 ‘看羊’이라는 시어를 이용하여 『看羊錄』이라 칭하였고, 이후 이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구성을 살펴보면 「賊中封疏」, 「賊中聞見錄」, 「告俘人檄」, 「詣承政院啓辭」, 「涉亂事迹」 등 다섯 편의 글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선조에게 올린 疏인 「적중봉소」는 일본에 억류되어 있던 1599년에 작성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 조정에 올려졌다. 피란부터 잡혀서 일본으로 오기까지의 과정과 일본 생활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조선으로 돌아가 죄를 받겠다는 강항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다. 강항은 자신이 죄인이지만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바탕으로 계책을 제시하고자 하여, <倭國八道六十六州圖>를 부기하고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기록한다. 그리하여 「적중봉소」에는 일본의 역사, 지리, 전쟁에 참여한 군사 수 및 장군 이름, 일본의 군사제도, 일본인의 복장, 대마도에 대한 일본의 태도 등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만 리 鯨海의 밖이고 구중 궁궐의 안인지라, 혹은 이 왜노들의 奸僞를 자세히 살피지 못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전후 사신의 내왕에 있어서도 다만 가고 오기가 바쁠 뿐 아니라, 경계와 금제가 엄밀하여 얻은 것이 혹은 상세하게 구비되지 못할 수 있을 것이요, 사로잡혔다가 탈출한 사람들 또한 하천배의 무리로서 속맥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많아, 듣고 본 것이 혹은 정확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감히 체면 무릅쓰고 기록하되, 왜승의 題判 가운데 왜의 언서로 쓴 곳을 신이 직접 우리나라 언서로 臚注하여, 諜人의 探問과 투항한 왜의 추문에 있어 편리하게 하였습니니다.⁴⁾

다. 선생에게 있어서는 그 자처하심이 비록 이와 같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옳지 못하거늘, 하물며 자제 문생으로서 이런 貶損의 명칭을 그대로 따르고 그 변통을 생각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 그래서 이제야 여러 벗들과 더불어 소상하게 고쳐서 이름하기를 『看羊錄』이라 하여 선생의 操執을 포괄 따름이며, 尙節· 闡幽하여 그것을 발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만 도덕이 있고 말 잘하는 군자를 기다린다. (是書始名巾車錄, 乃先生手所題. 夫巾車固罪人之乘, 而先生遂取以爲名者何居. 蓋先生執謙卑罪人然也. 在先生所自處, 雖如此在, 他人則不可, 況子弟門生, 可因是損貶之稱, 而不思其變耶. …… 由是乃今得與諸益, 消詳之改定名曰看羊錄, 以標先生操執而已, 至於尙節闡幽而發揮之, 則祇俟有道能言之君子云.)-『看羊錄』, 「跋文」.

4) 萬里鯨海之外, 九重獸闥之上, 或未洞燭此奴之奸僞. 前後使蓋之出入, 不但往還慮遽,

위의 글은 「적중봉소」의 일부분으로, 일본을 탐색하는 강항의 의도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일본은 먼 바다 밖에 있으며 사신이 왕래해도 일본의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신이 왜의 제관을 우리나라 말로 등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항은 포로의 입장이었지만, 좌절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국 속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일본을 탐색하려 한 것이다. 그의 이런 태도는 「적중봉소」뿐 아니라 『간양록』의 모든 글 속에 담겨 있다.

아래의 글은 일본을 탐색한 한 예로, 일본 군사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조금이라도 재주가 있는 사람들을 모아 군사를 양성하여 그 수효가 많고, 농민은 군과 상관 없이 1년 내내 농사에만 집중하여 식량을 제공하므로 효과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식읍을 가진 사람이 또한 그 토지를 나누어 部曲의 공 있는 사람에게 지급하면, 부곡은 또 그 토지의 소출을 가지고 精銳하고 勇力있는 사람을 모아 양성합니다. 칼 쓰기를 배운 자, 포를 잘 쏘는 자, 활을 잘 쏘는 자, 수영을 잘 하는 자, 군법을 잘 아는 자, 달리기를 잘하는 자 등, 조금이라도 한 가지 기예가 있는 사람이면 모두 망라하여 받아들이므로, 큰 주의 守는 그 수효가 몇 만 명으로 계산되고 작은 주의 수는 몇 천 명으로 계산됩니다. 한 번 공격전이 벌어지면 적괴는 여러 장수에게 명령하고, 여러 장수는 부곡에게 명령하고, 부곡은 家丁에게 명령하여 伍·兩이 군사를 거느리게 되어 있으므로, 精兵 健卒이 좌우에 있는 것만 하여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민은 1년 동안 농사에 전력하여 그 糧道를 공급합니다. 한 장수의 부하는 한 장수의 士卒이 되므로, 급작스럽게 징발하는 노고가 없고, 한 주의 창고는 한 주의 군량을 공급하므로 군량이 결핍될 염려가 없으니, 이는 비록 夷狄 부락의 상태이지만 그 部伍가 항상 일정하고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하면 공이 있는 것입니다.⁵⁾

戒禁嚴密，所得或未詳備，被擄脫歸之人，又多氓隸之徒不分菽麥者，所聞見或未端的。姝敢冒昧，陳錄倭僧題判中，以倭諺書填處，臣卽以我國諺書謄註，以便於謀人之探問，降倭之推問。-『看羊錄』，「賊中封疏」。

- 5) 食土者又分其土，以許部曲之有功者，部曲又以其土之毛，收養精銳勇力者。學劍者，放砲者，引弓者，善水者，通曉軍法者，急走者，稍有一藝一能者，並羅而致之，大州之守則其數以累萬計，小者以累千計。一有攻戰，則賊魁令諸帥，諸帥令部曲，部曲令家丁，伍兩率旅，精兵健卒，取之左右而有餘。其農民終歲緣南畝以給其糧道。一將之部下，爲一將之士卒，而無倉卒徵發之勞，一州之倉庫，給一州之軍餉，而無兵糧匱乏之患，是

그리고 강항은 이렇게 일본을 탐색한 것에 머무르지 않고 조선 군사 제도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계획, 조선 성읍의 문제점과 계획 등을 제시한다.

① 신이 보옵건대, 우리나라는 평소에 군사를 양성하지 아니하고 백성을 가르치지 아니한 채로, 임진년 이래로 농민을 마구 몰아세워 전장에 나가게 하였습니다. 조금 재력이 있거나 恒産이 있는 자는 뇌물을 써서 모면하고, 가난한 백성으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유독 征戍에 착실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장수는 일정한 군졸이 없고 군졸은 일정한 장수가 없어서, 한 고을 백성이 반은 巡察使에게 속하고 반은 節度使에게 속하며, 한 군졸의 몸이 아침에는 순찰사에게 예속되었다가 저물녘에는 都元帥에게 예속되게 되어, 장수와 군졸이 자주 바뀌므로 검속할 겨를이 없어, 체통이 서지 아니하고 모양이 이루어지지 아니합니다. 장차 어떻게 이들을 死地에 몰고 들어가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적을 제어하겠습니까?⁶⁾

②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분명하게 有司를 단속하여, 바닷가 모든 섬의 어업, 기름진 토지가 있는 곳과 바닷가 좋은 전답 중에 묵어서 풀밭이 된 것을 아울러 현저한 군공이 있는 변장에게 떼어주어 식읍으로 하게 하고, 유랑민을 불러모아 그로 하여금 개간하게 하며, 그중에서 壯士를 뽑아내어 군인을 만들고 그 토지의 소출로 軍餉을 하소서.⁷⁾

①은 우리나라 군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 ②는 전쟁 후 난민을 다스릴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다. 강항은 평소에 군사를 양성하지 않고 전쟁에 농민들이 참여하는 실정과 일정한 장수가 없어서 군의 체통이 서지 않는 조선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관리 동용책, 상벌 주는 계획, 호남과 영남 변방의 진 설치 계획, 군사 훈련 및 군량 지킬 계획 등을 제시한다. ②는 이런 여러 계획 중 난민을

雖夷狄部落之常態，其伍部常定，訓練有素，故動輒有功。-『看羊錄』，「賊中封疏」。
 6) 臣伏見我國不素養士，不素教民，壬辰以來，驅驟農民，以赴戰陣。稍有材力，有恒產者，以賄賂得免，貧民之無所聊賴者，獨賢於征戍。加以將無常卒。卒無常帥，一邑之民，半屬巡察使，半屬節度使，一卒之身，朝隸巡察使，暮隸都元帥，將卒數易，鈴束無暇，體統不屬，模樣不成。將何以驅驟於死地，制敵人之死命哉。-『看羊錄』，「賊中封疏」。
 7) 伏願殿下，明敕攸司，海濱諸島之有漁鹽沃壤處，及海濱良田之化為草萊者，並折與邊將之顯有軍功者，使爲食邑，招集流民，使之開墾，收其中壯士，以爲軍人，土毛以爲軍餉。-『看羊錄』，「賊中封疏」。

다스려 군인을 육성하고 군량을 만들 계획을 제시한 부분이다.

「적중문견록」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일본에서 보고 들은 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 조선으로 돌아 온 후 곧바로 조정에 바친 글이다. <倭國百官圖>와 <壬辰丁酉入寇諸將倭數>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일본 승려 등에게 자료를 구하여 강항이 등초하여 주를 붙이고 설명을 더한 것이다. <왜국백관도>는 먼저 일본 제왕과 관직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 후 일본의 8도 66주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河內【河州】. 대이다. 관할이 15개 군【錦郡·石川·古市·安福府·大縣·高安·河內·讚良·茨田·交埜·若江·澁河·志紀·丹北府·丹南】이다. 사방이 이를 길 남짓하다. 제방·沼·못·우물이 많으며, 심으면 5배가 난다. 市塵이 허다하다. 크고, 中에 드는 나라다. 靈龜 2년(716, 신라 성덕왕 15년)에 河內 大鳥郡을 떼어내고, 神護 慶雲 4년(707, 신라 성덕왕 6)에 해내의 島國을 정지시켰다. 【수길의 여러 小將들이 갈라서 받아 먹는다.】⁸⁾

위의 글은 66주 중 河內에 대한 설명이다. 관할 15개 군의 명칭이 실려 있고, ‘사방이 이를 길 남짓하다’고 하여 지역의 크기를 설명하고 있다. 또 곡식을 심으면 5배가 난다고 하여 땅의 특징이 나와 있으며, 역사적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다. 다른 65개 주도 이와 비슷하게 각 주의 관할 군, 땅의 특징, 오곡이 잘 나는지 여부, 지배자의 이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대마도에 대해서는 조선과의 관련성 속에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다.

평상시에 우리나라에서 이득을 입는 것이 많고, 일본에서는 적기 때문에, 장수로부터 졸병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추대할 마음이 일본에 부속하는 것보다 더하였다. 그래서 항상 도로가 멀고 파도가 험악하다는 것을 들어, 깊이 들어앉아 있는 왜에게 말해 오다가, 급기야 秀吉이 66주를 합병하게 되자, 의지가 죄를 두려워한 나머지 마침내 우리나라를 수길에게 팔아 前鋒이

8) 河內【河州】. 大. 管十五郡【錦郡石川古市安福府大縣高安河內讚良茨田交埜若江澁河志紀丹北府丹南】. 四方二日餘程. 堤沼池井多而生五倍. 市塵許多也. 大中國也. 靈龜二年, 割河內大鳥郡, 神護慶雲四年, 停海內島國. 【秀吉之諸小將分食之】-『看羊錄』, 「賊中聞見錄」.

되었다. 수길(水吉)이 筑前·博多의 땅을 떼어 그 공로에 대한 상으로 주자, 대마도의 將倭가 비로소 쌀밥을 먹게 된 것이니, 이전에는 오직 우리나라에서 내려준 쌀만을 먹었을 따름이었다. …… 대마도의 왜들은 날새고 독하지는 못하지만 교활하기 그지없고, 우리나라 일에도 또한 두루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 평소부터 섬 안의 영리한 아이들을 선택하여 우리나라 언어를 가르치고, 또 우리나라 書啓와 簡牘의 낮추고 올리는 曲節을 가르쳐, 비록 눈이 밝은 사람이라 창졸간에 보면 선뜻 倭書인 것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나라와 틈이 없으면 전적으로 內附할 생각을 갖고, 왜가 강성하면 우리나라를 팔아 嚮導가 되기를 자청하니, 그 흉악하고 간사한 음모가 이루 말할 수 없다. 변장들의 무마와 제어가 만약 혹시라도 방법을 잃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다시 이놈들에게 기만당하게 될 것이다.⁹⁾

위의 글은 대마도에 대해 설명한 것의 일부분으로, 대마도가 평상시에 는 조선에 붙었다가 수길이 6주를 합병하자 조선을 치는데 앞장선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또 그들이 평상시에 조선의 언어를 가르치고 글을 배우는 상황을 설명한 후, 앞으로 다시 조선을 기만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예시문 다음 부분에서 강항은 앞으로 대마도의 사신을 부산에만 머무르게 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만 있게 하여 조선에 대해 알지 못하게 하는 계책을 제시한다.

<임진정유입구제장왜수>는 여러 장수들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적중봉소」에는 군사 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여기에서는 장수들의 성격, 했던 일, 장수들 간의 대립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풍신수길에 대해서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태어날 때 손가락이 여섯이었다는 것에서부터 권력을 잡는 과정, 조선 침략 계획과 실천, 양자를 죽이는 과정, 그리고 죽고 나서의 상황까지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9) 在平時則蒙利於我國者多，日本者小，故自將倭至卒倭，戴我國之心，勝於附日本。常以道路迂遠風濤險惡，告深處之倭，及秀吉并吞六十六州，義智懼罪，遂賣我國，以秀吉而爲前鋒。秀吉割筑前博多地，以賞其功，馬島之將倭，始得粒食爾。前則惟食我國之賜米而已。……對馬之倭，銳毒不足，而巧詐百出，於我國之事，又無不周知。自平時，擇島中童子之伶俐者，以教我國言語，又教我國書啓簡牘之低昂曲折，雖明眼者，倉卒則不能辨爲倭書。我國無變則專意內附，倭奴盛強則賣弄我國，請爲嚮導，其凶謀詐計，不一而足。邊將之撫御，若或失道，則必復爲此奴之所誣矣。-『看羊錄』，「賊中聞見錄」。

이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파악한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제시한다.

추산해 보면 50년 전에 南蠻의 배 한 척이 표류되어 왜국에 도착했는데, 그 배에는 포탄 및 화약 등이 가득 실려 있었으므로, 왜인이 이때부터 포 쏘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의 천성이 영리하여 배우기를 잘해서 4~50년 사이에 뛰어난 포수가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왜노는 옛날의 왜노가 아니요, 우리나라의 방어는 또 옛날의 방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강역의 근심은 전일보다 백 배나 더한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이제 이후로는 남쪽을 경히 여기고 북쪽을 중히 여기는 폐습을 철저히 개혁하여 인심을 단결케 하며, 변방을 튼튼히 하고 邊將을 선택하며, 城과 壕를 구축하고 선박을 손보며, 봉화를 잘 관리하고 군졸을 훈련하고 기계를 수선하는 것 등을 한결같이 한다면 이보다 다행함이 없겠습니다.¹⁰⁾

위의 글은 과거에는 일본과 조선이 비슷했으나 일본이 50년 전 포 쏘는 기술을 배워 강해졌다고 상황을 설명하고, 기존의 북쪽을 중히 여기고 남쪽을 가볍게 여기는 폐단을 개혁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강항이 내세운 이러한 계획은 다른 사람도 내세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제도를 직접 보고, 그와의 비교 속에서 계획을 내기 때문에 더욱 설득력이 있다. 또한 포로로써 잡혀 있는 비극적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일본을 탐색하고 조선을 다스릴 계획을 제시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고부인격」과 「예승정원계사」는 비교적 짧은 글이다. 「고부인격」은 포로들에게 당부하는 글로, 고사를 다수 인용하여 일본을 비판하고 임금의 은혜에 대해 강조한다. 또 포로로써 자신의 심정을 서술하며 포로들에게 힘을 모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예승정원계사」는 부산에서 서울로 바로 올라간 후, 일본의 사정을 묻기에 작성한 글이다. 여기에는 일본인과 나뉘

10) 退計五十年前, 南蠻船壹艘漂到倭中, 滿載砲矢及火藥等物, 倭人從此學放砲. 倭性伶俐善學, 四五十年之間, 妙手遍一國. 今之倭奴, 非古之倭奴也, 而我國之防禦, 又非古之防禦也, 則疆域之憂, 不可不百倍於前日. 伏願繼今以往, 痛革輕南重北之弊, 一以結人心, 壯邊維擇邊將, 修城隍理舟楫, 謹烽火訓軍卒修器械爲務, 不勝幸甚. -『看羊錄』, 『賊中間見錄』.

던 대화가 실린 후 일본의 풍속에 대해 설명하고 자신의 평가를 덧붙이고 있다. 百工 중 天下一을 내세우는 풍습, 복서에 대한 무지, 중국사람이 일본에 계속 머무르려 한 일, 일본의 궁실과 후원, 승려들의 생활과 신사, 교역을 좋아하는 성질, 특이한 날씨와 지진 등 일본을 체험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들을 서술하고 자신의 평가를 덧붙인다.

『간양록』에 일본을 탐색하고 계획을 제시하는 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문학성이 짙은 「섭란사적」은 체험을 시간순으로 기술한 것이다. 피란 전의 상황부터 일본에서 억류가 끝나고 일기도를 출발할 때까지, 시간 순서대로 체험과 작자의 심리가 서술되어 있다. 또 당시에 썼던 시가 삽입되어 있어 강항의 정서가 압축되어 표현되고 있다. 강항은 전쟁을 겪고, 살기 위해 피란을 떠났다가 일본으로 끌려가는 비극을 겪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탔던 배와 떨어져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고, 아버지가 탄 배를 찾아다니다 왜적을 만나, 돌아가신 어머니와 형의 신주를 잃어버린다. 또 이후 바다 위에서 가족들의 죽음을 보게 되고, 강제로 헤어지게 된다. 이러한 개인적이면서 비극적인 경험이 「섭란사적」에 나타나 있다.

① 어린아이 龍과 첩의 소생 딸 愛生을 모래 밭에 버려 두었는데, 조수가 밀려 떠나려가느라 우는 소리가 귀에 들리더니 한참만에야 끊어졌다. 나는 나이가 30세에 비로소 이 아이를 얻었는데, 태몽에 새끼 용이 물 위에 뜬 것을 보았으므로 드디어 이름을 용이라 지었던 것이다. 누가 그 아이가 물에 빠져 죽으리라 생각했겠는가? 浮生의 온갖 일이 미리 정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모양이다.¹¹⁾

② 이튿날에 한 첩의 적의 배가 옆을 스쳐가는데 어떤 여자가 급히 ‘영광 사람! 영광 사람!’하고 부르므로, 둘째 형수가 나가 물으니, 바로 愛生의 어미였다. 배를 따로 탄 이후로 벌써 귀신이 되었으리라고들 말하였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그들이 살아 있음을 알았다. 그이가 천만 가지로 슬피 하소연하는

11) 稚子龍及妾女愛生，遺置沙際，潮回浮出，呱呱滿耳，良久而絕。余年三十，始得此兒，方娠夢見兒龍浮水中，遂以爲名。孰謂其死於水中也。浮生萬事莫不前定，而人自不悟矣。-『看羊錄』，「涉亂事迹」.

것을 귀로는 차마 들을 수 없었다.¹²⁾

①은 왜선에 잡힐 때 자식들을 잃은 상황을 서술한 것으로, 강항은 어린 자식들이 조수에 밀려 떠내려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후 강항 형의 여덟 살 된 아들도 바닷물을 먹고 배탈이 나자 왜적이 바다에 던져 죽였다. ②는 배가 왜선에 납치되어 가고 있던 중의 기록으로, 옆을 스치는 배에 타고 있는 자신의 첩과 지나치게 될 때의 상황이다. 왜적은 강항 일행 중 일부를 다른 배에 태워서 형수, 첩 등과 헤어졌다. 이 때 다른 배에 타고 있던 첩과 우연히 스친 것으로,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지는 않지만 짧은 표현 속에서도 작자의 심정이 애절하게 서술되어 있다.

지금까지 강항의 『간양록』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섭란사적」에 작자의 개인적인 경험을 담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본인의 감정 서술은 적었다. 강항은 개인적인 감정 서술보다는 일본을 탐색하여 앞으로 조선을 잘 다스릴 계책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다. 포로로써 타의에 의해 일본을 체험하게 되었지만, 체험이 체험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다.

3. 일본에서 중국으로의 탈출-魯認의 『錦溪日記』

노인(1566~1622)은 나주 사람으로 임진왜란 때 권율의 아래에서 전쟁에 참여하였다. 이후 1597년 8월에 남원성이 함락되었을 때, 도원수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가다가 포로가 되었다. 그 후 일본으로 잡혀가 伊豫州에 억류되었다. 노인은 일본에 있는 동안 한 차례 배를 타고 탈출하려다 실패하고, 다시 중국으로 가는 배편으로 탈출을 시도하여 1599년 3월 17일에 탈출에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중국 福建省으로 갔다가 귀국을 승인

12) 翌日有賊船一隻，掠而過，有女子急號靈光人靈光人，仲嫂出問之，乃愛生母。分載之後，謂已爲鬼，而至此始知其生。千般哀訴，耳不忍聞。-『看羊錄』，「涉亂事迹」。

받고, 북경을 거쳐 1600년 1월에 서울로 돌아왔다. 이처럼 노인은 다른 작자들과는 다르게 중국을 경유하여 고국으로 돌아옴으로써, 체험 공간이 중국으로까지 확장되어 있다. 당시 전쟁에 한·중·일이 모두 참여하였으니 작자가 모든 임진왜란 관련 나라를 경험한 것이다.

현전하는 『금계일기』는 1599년 2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4개월 7일간의 기록으로 앞과 뒤가 끊어진 채 필사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해지는 것 전후로도 일기를 썼을 것으로 추측되나, 포로로 보낸 2년 5개월 가량의 경험 중 4개월 여의 일기만 전해져 완결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러나 납치될 때와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은 『錦溪集』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현전하는 부분에는 일본에서 탈출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탈출 성공까지의 상황과 중국에서의 생활이 기록되어 있다. 강항과 정희득이 일본의 허락을 얻어 고국으로 돌아온 반면에 노인은 자신의 힘으로 몰래 탈출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탈출을 준비해서 성공하기까지 격정적인 과정은 『금계일기』에서만 볼 수 있다. 현전하는 부분에 이 탈출과정이 담겨 있으며, 다른 작품에는 없는 중국 체험 부분이 담겨 있어서, 현전하는 부분만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

『금계일기』의 중요한 부분인 탈출과정을 다음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기 간	과 정
1599년 3월 1일~3월 16일	탈출 준비
1599년 3월 17일	탈출 성공, 항해 시작
1599년 3월 18일~3월 27일	중국으로의 항해
1599년 3월 38일	중국 복건성의 항구 闕에 도착

탈출을 준비하면서 노인은 불안한 나날을 보낸다. 지난 해에 중국배가 돌아갈 때에 조선 사람 3명이 그 배를 통해 탈출을 하려다 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듣고 불안해 하고(1599년 3월 7일), 노인 등을 데려가기로 약속했던 중국 사람이 와서 데려가는 것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가슴을 치며 한탄하기도 한다(1599년 3월 9일). 그러다 노인은 거룻배를 타고 섬에

나가있다가 일본인들이 중국 배를 수색한 후 섬에서 배를 옮겨 타는 묘책을 찾아낸다(1599년 3월 12일). 묘책을 찾아낸 후에도 노인의 두려움은 그치지 않는다.

방에 들어가 앉았다 누웠다 하니, 의심과 두려움이 갑절이나 간절했다. 해가 저물녘에 또 효순 등을 유인하여 말하기를, “양식은 비록 갖췄다 해도 반드시 물통 세 개, 밥 지을 솥 한 개도 구해 얻어야 한다.”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그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기에 또 말하기를, “내가 진·이와 서로 약속하기를, 중국 배가 돛을 다는 밤에 나는 몰래 효순 등과 더불어 그 밤으로 거룻배를 타고 갯가로 먼저 와서 작은 섬을 의지해 대었다가, 왜놈이 배를 수색한 뒤 돛을 달 때를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빠르고도 치밀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혹 중국 배와 공교롭게도 어긋나면 그대로 순풍을 타고 곧바로 전라도의 물이 없는 요새처로 향하는 것이 제일 좋은 계책이다.” 하였더니, 효순 등이 말하기를, “두 가지 계책이 다 기묘하니, 명령에 따를 뿐이요 다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였다.¹³⁾

위의 글은 1599년 3월 14일 일기의 전문으로 앉았다 누웠다는 반복하며 두려워하는 노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효순에게 물통 세 개, 솥 한 개 등을 준비하라고 하는 노인의 꼼꼼한 준비 태도와 중국 배를 타는 계책이 실패했을 때 거룻배로 전라도로 바로 가려는 다음 계책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준비를 하던 노인은 3월 17일에 탈출을 시도한다.

나는 거룻배를 타고 연안을 몰래 떠나서 개펄 밖에 작은 섬을 의지해 대니 거리는 15리 남짓했다. 밤이 새도록 의심하고 두려워하였는데 해가 뜰 무렵에 중국 배가 과연 갯가로 나와 돛을 반쯤 달고 차츰 작은 섬으로 가까이 오

13) 入房坐臥，疑懼倍切。日暮，又引孝淳等曰，糧則雖備，必水桶三介，炊鼎一坐，亦可圖得。答曰，此事不難矣。又曰，我與陳李相約曰，唐船掛帆之夜，我潛與淳等，當夜乘小艇，先來浦外，依泊小島，以待倭奴搜船後掛帆之時，如此之事，鼎鼎密密，倘或唐船巧違，則因乘順風，直向全羅無水之要處，第一長計。孝淳等曰，兩策皆妙，唯命是從，不須再教。-『錦溪日記』, 1599년 3월 14日. (현전하는 부분은 모두 1599년의 일기이므로, 이후부터 년도는 기재하지 않는다.)

는 것이었다. 나는 거룻배로 나가 맞이하며 뱃머리에 서서 손을 흔들며 임공을 급히 부르니, 진·이가 바라보며 돛을 내리므로 나는 노를 재촉하며 나는 듯이 중국 배 곁으로 갔다. 진·이가 커다란 새끼줄 두 끝을 내려뜨려 거룻배의 앞뒤를 매게 하고, 또 새끼줄 하나를 내리므로 나는 먼저 붙들고 올라갔다. …… 곧 백주 한 잔을 주기에 나는 말하기를, “기쁜 기분이 가슴에 가득 차서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합니다.” 하니, 좌우에서 한숨지으며 웃는다.¹⁴⁾

위의 글은 탈출에 성공할 때의 기록으로, 탈출 당시의 상황과 작자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다. 작은 섬에서 밤새도록 의심하고 두려워하다가 다가오는 중국 배를 맞이하고,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듯하다는 노인의 행복한 마음을 볼 수 있다.

중국으로의 항해는 긴 포로생활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희망의 항해이다. 강항이나 정희득이 조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짧게 서술한 데 비해, 노인은 중국으로의 항해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자신의 의지로 성공한 탈출 과정을 부각시킨다.

① 동풍이 바닷물을 걷어올리고 큰 비는 물 쏟듯 하며, 무서운 파도는 하늘에 맞닿아 맑았던 날씨가 캄캄해지고 눈덩이 같은 파도가 오르내리니, 배도 따라 떴다 잠졌다 한다. 꾸부려 파도 속을 바라보니, 깊은 골짜기에 임한 듯하고 뛰는 물결은 높이 솟아 배 위에 물이 가득했다. 그러나 배 다락과 갑판을 만든 제도가 우리나라 戰船과 비슷하여 가운데는 높고 가 쪽으로는 기울어졌다. 석회로 갑판 틈을 발라서 비가 내리고 물결이 올라온다 해도 저절로 흘러서 뱃전으로 내려가고, 곧바로 배 안으로는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니, 뱃사공이 말하기를, “가는 방향으로 부는 바람이니 조금도 두려워 마시오.” 하였다.¹⁵⁾

14) 我乘小艇，沿岸潛發，依泊於浦外小島，相距十五餘里。達夜疑懼，平明，華舟果出浦外，風帆半掛，漸近小島。我迎出小艇，立于船頭，揮手招招林公，陳李望見下帆，我促櫓如飛，傍于華舟，則陳李以大索二端垂下，使結小艇頭尾，又下一索，我先攀登。……即饋白酒一盃，我曰，喜氣填膺，不食如飽，左右歎笑。-『錦溪日記』，3月 17日。

15) 東風捲海，大雨如注，怒濤連天，白日黑昏，雪屋高下，舟從浮沒。俯見波心，如臨洞壑，超浪高聳，波滿船上。然樓板之制，彷彿我國戰船，而中高邊側，以石炭塗於板隙，雨雖下而波雖上，自流下舷，直不入船中矣。然舟人則大懼，篙工曰，此風正順，萬萬無疑矣。-『錦溪日記』，3月 21日~22日。

② 큰 고래가 바닷물을 내뿜으니 공중에서 눈이 날리는 것 같았다. 뱃사람은 놀라고 기뻐하며 말하기를, “배가 이미 건너왔습니다.” 하기에, “어떻게 아는가?” 하고 물으니, 대답하기를, “물속에 사는 동물은 물이 얇은 바다 개펄에 있기를 좋아하고, 넓고 깊은 곳에 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고래가 물을 뿜는 것을 보면 반드시 물이 얇은 것으로 짐작되니, 이것으로 압니다.” 한다. 한 젊은 사람이 배 안에서 나와 피리를 부니, 온 뱃사람이 모두 즐겁게 듣는다. 나는 시 한 구절을 지었는데, 임차관이 와 보고 말하기를, “글귀를 만드는 법이 깨끗하고 기묘하다.” 하니, 온 뱃사람이 모두 보았다.¹⁶⁾

①과 ②는 모두 노인이 일본에서 중국으로 항해하는 과정 중의 일기이다. ①은 파도가 거센던 3월 21일부터 22일까지를 묶어 기록한 것으로, 높이 솟구치는 파도와 배의 흔들림을 묘사하고 물이 들어차지 않는 배의 구조를 서술하고 있다. ②는 고래를 통해 육지에 거의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 3월 25일의 기록이다. 여기에서는 육지에 가까워짐을 알고 사람들이 피리를 불고, 시를 지으며 흥겨워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에 도착한 3월 38일부터 현전하는 6월 27일까지는 모두 중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한 것이다. 중국에 도착한 후 노인은 여러 중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고 그들의 부탁으로 시를 지어 준다. 그리고 글 재주를 인정받아 5월 12일부터 兩賢祠書院의 강학에 참여하며 여러 수재들과 교류를 한다. 안정된 생활 속에서 노인은 중국 사람들과의 문답, 주고 받은 시, 토론한 내용 등을 일기에 기록한다. 그러나 중국에서 여러 사람들과 교류를 하며 안정되게 지내는 듯 하지만 고국을 빨리 가고자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작자는 여러 차례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 한다. 그리하여 빨리 돌아가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인 催歸文을 여러 차례 쓰게 되고 그 전문이 일기 속에 들어있다.

16) 長鯨噴海，半空飛雪。舟人驚喜曰，船已渡矣。我曰，何以知耶。答曰，凡水族，皆喜在水淺海浦，而不喜在蒼溟極深處。今見鯨兒之噴，想必水淺，是以知也。既而，有一年少人，自船中出口以風管，一舟皆喜聞。我遂作一絕，林差官來見曰，句法清妙矣，一舟皆見。-『錦溪日記』, 3月 25日。

① 비록 백 가지로 추측해 보아도 집안의 친척은 다 죽어 肝腦가 땅바닥에 버려져 여우와 이리의 밥이 되었을 것이니, 가만히 생각하면 피눈물이 흐르며 오장이 찢어지고 혼이 나가 미칠 것만 같아 세상이 깜깜합니다. 슬픈 한 생각은 다만 돌아가서 금년 겨울 눈이 내리기 전에 돌아간 부모의 백골을 거두고 영혼을 불러 선영 아래에 장사지내고 싶을 뿐입니다. …… 호랑이 입에서 겨우 모면하여 여기에 체류하여서는 괴로움이 쌓여 병이 되었고 한 시간이 3년보다 갑절이나 되오니, 바라건대 합하께서는 사랑하고 용서하셔서 곧바로 돌려 보내어 국가와 부모를 위한 성의를 다하게 하시면 천만 다행하겠습니다.¹⁷⁾

② 제가 주야로 슬피 우는 것은 서리나 눈이 내리기 전에 돌아간 아버지의 백골을 풀숲 속에서 찾아내지 못할까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조선은 遼와 접하여 산악이 높고 험준하므로, 10월부터 눈의 높이가 석 자나 되어, 3월에야 개통이 됩니다. 만약 눈이 내린 뒤엔 비록 고향에 돌아가더라도, 부모께서 화를 당한 곳을 분명히 알 수가 없어, 거두어 염습할 수가 없고, 또 원통한 혼으로 하여금 닥쳐오는 겨울의 눈 내리는 속에서 서러워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슬픈 생각이 이에 미치니, 목이 메고 기진함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마음이 무너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만약에 변고를 만난 형제가 이와 같지 않았다면, 높은 위엄을 모독함이 어찌 감히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겠습니까? 여러 相國에게 만 번 비노니, 실컷 보고 물리도록 들었다고 생각하고 더욱 안쓰럽게 여기서, 일찍 호송하는 일을 의논해 주십시오. 3월부터 괴롭게 묵으면서 지금까지 몇 달이 흘러갔는데도 아직도 돌아갈 날이 없어, 심화가 배나 더하여 온갖 병이 발병하였으니, 남은 목숨이 비록 모질지만, 보존하여 돌아가지 못할까 걱정입니다. 죄상을 돌아보지 않고 급히 부르짖으며 살려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¹⁸⁾

위의 글은 모두 최귀문의 일부분이다. ①은 4월 14일에 쓴 것으로 ‘괴

17) 雖百爾推之，一家之親，皆死無餘，而肝腦塗地，狐狸有事，潛思血泣，五內崩摧，魂喪如狂，天日昏冥。哀哀一念，只在趨歸，今冬雨雪之前，七親白骨收拾，招魂埋葬於先塋之下也。……艱免虎口，留滯至此，積傷成病，一刻倍三秋，更願閣下仁恕，卽卽回送，俾遂犬馬豺獮微誠，千萬幸甚。-『鎭溪日記』，4月 14日。

18) 大槩某日夜哀泣者，恐未趨歸於霜雪之前，尋見亡親白骨於草莽之間也已。朝鮮接遼山岳高峻，自十月雪高三尺而三月始開。若雪下之後，雖到故鄉的，知父母被害塗地之處，未得收殮，又使冤魂，慘慘於來冬雨雪之口。哀念及此，不覺哽塞氣盡也。雖有崩心之痛，倘非遭變之勢如是，則冒瀆尊威，何敢至此哉。萬祝僉相國，勿以爲厭見厭聞，更加垂憐，早議護送也。自三月苦滯，今至數月，尙無歸日，心火倍熾，百病交侵，殘命雖頑，恐未保全而還。不顧罪狀，疾呼而求生也。-『鎭溪日記』，5月 8日~9日。

눈물이 흐르며 오장이 찢어지고 혼이 나가 미칠 것만 같아 세상이 깜깜하다'고 자신의 심정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물론 상대방을 감동시켜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장하여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전쟁 속에서 부모님의 백골이나마 거두고자 하는 작자의 처절한 심정은 진실된 것이다. ②는 5월 8일~9일에 쓴 것으로 ①에 비해 더 간절히 돌아가기를 부탁하고 있다. 조선이 요와 접하여 눈이 내린 뒤엔 돌아가기 힘들다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온갖 병이 발병하였다고 하여 ①에서 괴로움이 쌓여 병이 되었다고 한 것보다 병을 강조한다. ①을 쓸 때보다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돌아가는 것이 정해지지 않았으니 노인의 괴로움이 더 커진 것이다.

노인은 중국으로 탈출하기만 하면 조선으로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목숨을 걸고 중국으로 갔지만, 조선으로 돌아갈 날은 기약이 없었다.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조선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본에서처럼 포로로써 억류된 것은 아니었기에 중국 사람들과 교류하고 강학에도 참여하였지만 노인의 중국 생활은 괴로운 나날이었다. 이를 중국인과의 문답이나, 작자의 직접적인 서술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최귀문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임진왜란 중에 일본으로 포로로 잡혀가, 중국으로 탈출하고, 다시 중국에서 조선으로 돌아오는 노인의 경험은 전쟁에 참여한 삼국을 모두 경험한 것에 의의가 있다. 목숨을 걸고 탈출하는 과정과 중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최귀문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글을 담고 있는 것은 『금계일기』가 갖는 중요한 가치라 하겠다.

4. 그리움과 눈물의 일본 체류-鄭希得의 『月峯海上錄』

정희득(1575~1640)은 함평 사람으로, 1597년 일본의 침략 때 가족과 친척이 함께 뱃길로 피란을 떠났다가 1597년 9월 27일에 왜적에게 잡혔

다. 잡힐 때, 어머니와 형수, 아내와 누이 동생은 바다에 빠져 자결하였는데 정희득과 형제들은 묶여있는 상태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함께 잡혔던 아버지와 두 아이는 왜적이 놓아 보내주고, 정희득은 형 정경득, 집안 사람인 정호인 형제 등과 함께 일본 阿波國 德島城으로 압송되었다. 이후 1598년 11월 22일에 덕도성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올라 12월 22일에 대마도에 도착했다. 그러나 대마도주의 허락을 받지 못해 6개월여를 억류당한 끝에 1599년 6월 17일에 대마도를 출발하여 6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했다. 그리고 고향인 함평에는 7월 20일에 도착했다.

『월봉해상록』은 모두 두 권으로 되어 있으며, 권1에는 疏, 風土記, 日錄이 실려 있고 권2에는 詩가 실려 있다. 이 중 중요한 문학 작품은 일록과 시로, 필자가 연구하고자하는 것은 일기 형식으로 기록된 실기인 「海上日錄」이다. 분량적인 면에서도 풍부하고, 거의 모든 날에 일기를 기록하여 체험과 정서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시가 권2에 따로 있기 때문에 「해상일록」은 몇 편의 시를 제외한 모든 기록이 산문으로, 그날그날의 경험과 감정을 위주로 서술되어 있다.

「해상일록」은 피란을 떠나던 날인 1597년 8월 12일부터 고향에 돌아와 장모님을 뵙고 아이를 만나던 날인 1599년 7월 28일까지 기록되어 있다. 앞서 살폈듯이 『간양록』에는 피란을 떠나는 과정이 요약되어 있고, 『금계일기』는 앞과 뒤가 전해지지 않은 채 4개월 여의 기록만 남아 있다. 이에 반해 「해상일록」은 피란을 떠나는 날부터 기록되어 있어 피란의 시작부터 볼 수가 있다.

왜적이 두 번째 내침한다는 소식을 듣고 호남의 인심이 흉흉하여, 산으로 갈까 바다로 갈까 두 가지 의논이 있었으나 갈피를 잡지 못하였다. 나는 곧 어버이를 모시고 가권을 거느리고, 지고 메고 하여 길을 떠났다. 우리는 길에서 녹초가 되어 눕고 약한 이들이 엎어지고 넘어지니, 심신을 가눌 길 없어 어디로 가야할지를 몰랐다. 되돌아 西海를 향하며, 창황한 중에 질구한 수를 지었다.¹⁹⁾

19) 聞賊倭再寇，湖南人心洶懼，將有登山浮海二議而未決，余乃奉親挈眷，擔負而發行。

위는 「해상일록」의 첫 기록인, 1597년 8월 12일 일기의 전문이다. 왜적이 다시 침입한다는 소식을 듣고, 산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고민하는 과정과 피란 길의 괴로움이 담겨 있다. 결국 서해로 향한 정희득 일행은 8월 19일에 배를 수리하고, 9월 15일에 배에 오른다. 이렇듯 「해상일록」을 통해 배를 타기 전의 과정도 볼 수가 있다.

노인이 혼자서 육지에서 잡힌 반면, 정희득과 강항은 가족과 친척들이 모여 뱃길로 피란을 떠나 온 일행이 왜적에게 잡힌다. 정희득도 강항과 마찬가지로 바다에서 가족의 죽음을 보게 된다. 아래의 글은 왜선을 만나고 정희득의 어머니와 형수, 아내와 누이 동생이 바다에 빠져 자결한 날의 기록이다.

배가 七山 앞 바다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적선을 만났다. 사공의 놀란 고함 소리에 온 배에 탔던 사람이 창황실색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어머니님 李氏께서 형수 朴氏와 아내 李氏, 시집 안 간 누이동생에게 이르기를, “추잡한 왜적이 이렇게 닥쳤으니 횡액을 장차 예측할 수 없구나. 슬프다, 우리 네 부녀자가 자처할 방도는 죽음 하나만이 생사 간에 부끄럽지 않을 뿐이다.” 하시니, 아내가 말하기를, “집에서 난을 처음 당했을 때, 일찍이 가장과 더불어 함께 죽기를 약속했지요. 저의 결심은 이미 정해 있습니다.” 하고는 낮빛도 변함없이 늙은 아버지께 하직을 고하고, 나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지성이면 하늘도 감동한다 하오니 당신은 조심조심 몸을 아껴 형제분 함께 아버님을 모시고 꼭 생환토록 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장부의 할 일입니다. 간절히 비읍니다.” 하였다.

드디어 어머니님·형수님·누이동생과 더불어, 앞을 다투어 바다에 몸을 던졌다. 우리 형제는 賊徒가 배 안에 묶어 두어 죽으려야 죽을 수도 없었으니, 망극하고 통곡할 뿐이었다. 法浦에서 피란하던 배가 당초에는 바둑판 벌여 있듯 했었는데, 어찌하여 우리만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쳐, 간장이 찢어질 듯하였다.²⁰⁾

廢墟路上, 老弱顛仆, 心神靡定, 莫知所從. 轉向西海, 蒼黃之中, 仍成一絕. -『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7년 8월 12일.

20) 船到七山大洋中, 忽遇賊船. 蒿卒驚呼, 一船人蒼黃失色, 罔知所措. 母夫人李氏謂邱嫂朴氏, 妻李氏, 未笄妹曰, 賊醜此迫, 禍將不測, 嗟吾四婦女自處之道, 無出一死, 將無愧於幽明之間矣. 妻曰在家亂初, 曾有與夫同死之約, 吾計已定, 神色不變, 告訣老親

위의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정희득의 어머니와 형수, 아내와 누이 동생은 바다에 몸을 던져 죽었고, 목여 있었던 정희득은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틀 후인 29일에 다시 왜적이 아버지와 아이들을 외딴 바닷가에 내려 놓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다. 이렇게 가족의 죽음과 이별은 정희득에게 큰 아픔이 되었고, 이런 아픈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일기에 기록한다.

일기의 많은 부분은 감정 서술에 치중되어 있다. 때로 문답을 싣고 있기는 하지만 극히 일부이며, 슬픈 감정을 직접적으로 쓰며 우는 것 또한 감추지 않고 있다.

① 배가 한 곳에 이르러 禮陽을 만났다. 예양은 전부터 처가에 있던 여중인데, 육지에서 왜놈에게 잡혔다 한다. 형클어진 머리와 수척한 몸골이 금방 알아보기 어려웠다. 喪亂 이야기를 하자니, 두 눈에 문득 눈물이 흐르고 목이 매어 말을 잇지 못하였다.²¹⁾

② 작은 섬에서 묵었다. 밤에 모친과 아내의 꿈을 꾸었다. 깨어나니 나도 모르게 왈칵 울음이 터졌다. 한번 죽어 이별한 뒤로, 밤마다 눈만 감으면 꿈이 되어 서로 만나니, 정말 생사 간 오가는 느낌이 깊은 줄을 알겠다.²²⁾

③ 꿈에奇兒를 보고, 시름없이 일어나 앉았다. 가엾다, 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 없거늘, 어디서 또 엄마라고 불러 볼 것인가. 그 고단함을 생각하니, 흐르는 눈물을 금치 못하겠다.²³⁾

④ 이 날은 죽은 아내의 생일이다. 그때 일을 생각하니, 푸른 바다 아득한 데 외로운 혼은 어디 있을까? 혼자 앉아 서글퍼 두 줄 눈물을 가누지 못하였다. 밤에 부친이 앉으시는 꿈을 꾸고 깨어보니, 온몸이 흠뻑 땀에 젖었다. 부

而顧謂余曰，至誠感天，竊願卿慎重自愛，與兄衛親，必圖生還，此是丈夫之事，至祝至祝。遂與母嫂妹爭先投海。吾兄弟則賊徒縛置船中，求死不得，罔極罔極，痛哭痛哭。法浦避亂之船，初如布基，而奈何吾獨至於斯境。叫天扣地，肝摧腸裂。-『月峯海上錄』，「海上日錄」，1597年 9月 27日。

21) 船到一處遇禮陽。禮陽乃聘家舊侍婢，爲陸倭所擒云，而蓬頭瘦面，未卽相識。爲言喪亂，雙淚却垂，嗚咽不成音。-『月峯海上錄』，「海上日錄」，1597年 10月 3日。

22) 留泊小島。夜夢見母親及室人。覺來不覺痛哭。一自死別之後，夜夜合眼則做夢相見，固知幽明之感應深矣。-『月峯海上錄』，「海上日錄」，1597年 10月 16日。

23) 夜夢見奇兒，惘然起坐 憐渠無父可呼，何處又喚孃也。思其子子，不禁淚注。-『月峯海上錄』，「海上日錄」，1598年 6月 23日。

친게서 무슨 병이 있으시기에 꿈결이 이러한가? 알 수 없는 일이다. 시름이
만 갈래라 그려 낼 수 없다.²⁴⁾

위의 글들은 각각 1597년 10월 3일, 1597년 10월 16일, 1598년 6월 23일, 1599년 1월 4일 일기의 전문이다. 네 편 다 짧은 글로, 본인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①과 ②는 일본으로 이송되는 중으로, ①에서는 처가의 중을 만나 눈물을 흘리고 있고, ②에서는 꿈에 어머니와 아내를 본 후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③과 ④는 일본에 억류되어 있을 때의 기록으로, ③에서는 아이의 꿈을 꾸고 아픈 마음을 표현했고, ④에서는 아내의 생일을 맞아 슬픈 마음과 아버지가 아픈 꿈을 꾸고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이렇듯 정희득은 본인의 감정을 위주로 꾸밈없이 감정을 드러내는데, 여중 앞에서도 눈물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 외에도 배가 도착했을 때 물색이 조선과 같다고 하여 비통해하고(1597년 12월 8일), 새를 보고 눈물을 흘리고(1597년 12월 17일), 감자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1598년 2월 12일), 조롱의 새를 보고 슬퍼하는(1598년 2월 15일) 등 그의 슬픔과 눈물은 일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물론 강항과 노인도 아픈 마음을 표현하기는 하지만, 감정 표현이 일부인 데 반해 정희득은 많은 부분을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데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슬퍼하던 정희득은 귀국을 허락받고, 덕도성을 출발하여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하지만 귀국길은 결코 쉽지 않았다. 배를 타고 대마도를 가는 과정도 어려웠으며, 힘들게 대마도에 도착해서는 6개월 여를 억류당한 채 고국을 그리워해야 했다.

① 아침에 馬花島에 이르니, 역시 찬기 땅이다. 풍우에 막혀 그대로 묵었다. 앉아서 보니 높다란 소나무는 낙락히 솟아 있고 가는 빗발은 소소히 뿌린

24) 乃亡妻生日也。言念當時事，碧海茫茫，孤魂何托。獨坐悄然，不禁雙淚。是夜夢中，父親遺疾，覺來流汗沾身。不知親堂有何疾故，而夢事如是耶。愁緒萬端，不可形言也。-『月峯海上錄』，『海上日錄』，1599年 1月 4日。

다. 지난해 이날에 昌原에 있다가 비로소 배를 타고 들어왔는데, 생각을 더듬으니 심사가 갑절이나 처량하다. 이날 밤 광풍을 만나 배가 거의 침몰할 뻔했다. 주머니의 돈을 털어 앞마을에 가 술을 사서 왜놈 뱃사람을 달랬다.²⁵⁾

② 닭이 울자 달빛 아래 배를 띄웠다. 바람은 끈고 물결은 잔잔해서 반돋으로 탈 없이 저녁에 대마도 성 아래에 닿았다. 만나는 사람의 반은 잡혀온 사람들이었다. 모두 말하기를, ‘철명한 뒤로는 바다 건너기가 무척 어려워졌다.’고 하였다. 고국을 바라보니 구름결에 어렴풋한데, 바람을 맞으며 울부짖으니 슬픈 심회가 새롭게 났다.²⁶⁾

①은 대마도로 향하던 때의 기록으로, 광풍으로 죽을 뻔한 위기를 겪기도 하고, 왜놈 뱃사람들에게 술을 사주면서 사정도 해야 했다. 정희득 일행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으며 대마도에 도착하지만, ②에서 알 수 있듯이 대마도에 도착하자마자 바다 건너기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이후 일기에는 대마도에 억류당한 채 괴로워하며, 돌아가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6개월여를 억류당했던 정희득 일행은 1599년 6월 17일에 대마도를 출발하여 6월 29일에 부산에 도착한다. 그리고 고향인 함평에는 7월 20일에 도착하는데, 「해상일록」에는 부산에 도착한 후 조선에서의 여정도 담겨있다. 부산에 도착했다 하여 모든 고난이 끝난 것이 아니다. 부산에서 함평에 이르기까지 여정도 매우 힘든 길이었다.

① 자루에 쌀이 떨어져 길을 떠나지 못하고, 마을에 다니며 구걸하니, 舊穀은 이미 다 되었고 신곡은 아직 거두지 못하여, 종일 얻은 것이 매우 적었다.²⁷⁾

25) 朝, 到泊馬花島下, 亦讚歧境也. 阻風雨留宿. 坐看危松落落, 細雨蕭蕭. 去年此日在昌原, 始登船入來, 想來心緒倍覺悽然. 是夜遇狂風, 船幾覆沒. 取囊中錢, 買得前村酒, 勞船倭輩.-『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年 11月 26日.

26) 鷄鳴乘月發船. 風順波靜, 片帆無恙. 是夕到對馬島城下. 逢人半是被擄人. 皆曰撤兵之後, 渡海極難云. 瞻望故國, 雲物依稀, 臨風痛哭, 哀懷如新.-『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8年 12月 21日.

27) 糧囊傾盡, 不能登途, 乞於村落, 而舊穀已盡, 新穀未登, 終日所得甚些.-『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年 7月 5日.

② 大捷碑를 지나서, 雲峯 땅 조그만 산중의 마을에서 잤다. 비가 와서 하늘은 까마득하고 호랑이가 낮에도 울고 다니, 고생이 말할 수 없었다.²⁸⁾

③ 큰비가 내리고, 또 형님이 발을 다쳐 부득이 하루를 묵었다.²⁹⁾

위의 글은 함평으로 가는 중인 1599년 7월 5일, 7월 14일, 7월 15일의 기록이다. 쌀이 떨어져 마을을 다니며 구걸하고, 비가 오는 중에 호랑이가 다니는 길을 지나가며, 형님이 발을 다치는 등의 고난을 볼 수가 있다. 이런 고난을 겪은 후 정희득은 드디어 7월 20일에 고향인 함평에 도착한다.

① 집에 도착했다. 부친은 성내에 가셨다가 밤에 돌아오셨다. 손을 잡고 통곡했다. 모친은 하나의 나무 신주일 뿐이었다. 모친과 형수·아내·누이동생의 海中의 변고를 되짚어 생각하니 망극하기 이를 데 없다. 하늘을 부르짖고 땅을 치니 오장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듯했다. 게다가奇遇는 이미 나이 8세라, 옷을 부여잡고 호곡하니, 이날의 심회 형언할 수 없다. 遇兒는 草洞 처가에서 기르기 때문에 당장 서로 보지 못하니 더욱 애련했다. 집은 불타고 골목은 바뀌어졌으며, 촌락은 빈 터를 이뤄, 사람들이 옛 모습이 아니었다. 슬펐지만 오직 돌아와 노부를 모시게 된 것이 이 세상의 다행이었다.³⁰⁾

② 草洞에 가서 장모를 뵈고, 遇兒를 데리고 왔다. 나이 벌써 6세이다. 사람은 죽어도 흔적은 남았다. 지난 일 아득하여 애절한 심회 어찌 말로써 다 하리오.³¹⁾

①은 함평에 도착한 날인 7월 20일의 기록으로 정희득은 아버지를 만

28) 過大捷碑, 宿雲峯境, 山中小村, 而雨天漆黑, 虎豹晝號, 酸苦不可言.-『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年 7月 14日.

29) 大雨, 且舍兄足傷, 不得已留住.-『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年 7月 15日.

30) 到家則父親入城夜還, 而握手痛哭. 母親一木主而已. 追思母親及嫂妻妹海中之變, 罔極罔極. 叫天扣地, 五內崩裂. 加以奇兒年已八歲, 牽衣呼哭, 此日懷抱, 不可形言. 遇兒養在草洞聘家, 故不即相西, 尤可憐也. 家舍灰燼, 巷陌變易, 村落成墟, 人面非昔. 觸目悲酸, 而惟以歸侍老父, 爲此生之幸耳.-『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年 7月 20日.

31) 往拜草洞聘母, 帶遇兒而還. 年已六歲. 人亡跡在. 往事蒼茫, 傷慟之懷, 何可容說.-『月峯海上錄』, 「海上日錄」, 1599年 7月 28日.

나 통곡하고, 어머니와 아내 등의 죽음을 생각하고 통곡하며, 또 훌쩍 큰 아들을 잡고 통곡을 한다. 그리고 집이 불타고 골목이 바뀐 모습을 보고, 슬프지만 아버지를 모실 수 있는 것을 다행이라 여긴다. 또 작은 아이가 장모님 댁에 있다는 것을 듣고, 8일 후인 7월 28일 장모님 댁에 가서 아이를 만나는 것으로 글을 끝맺는다. ②는 작은 아이를 만나는 7월 28일 일기의 전문이다.

정희득도 강항, 노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에 포로로 다녀오게 되고 『월봉해상록』에 그 과정이 담겨 있다. 정희득은 슬퍼하고 우는 등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어, 다른 작품과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월봉해상록』에는 피란을 떠나는 날부터 고향에 돌아오기까지의 전 과정이 담겨 있어, 포로 체험과 관련한 전 과정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강항의 『간양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을 살펴보았다. 세 작품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써의 해외 체험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세 명의 작자는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포로로써 일본을 체험하게 된다. 이들은 모두 호남의 문인으로 일본의 2차 침입이 있었던 정유년에 잡혀 가, 비슷한 시기에 고국으로 돌아왔다. 이들의 작품은 임진왜란 때 포로로 일본에 다녀온 귀중한 자료로, 전쟁포로로써 해외 체험을 실기로 기록한 독특한 작품군을 형성하고 있다. 세 작품은 비슷한 경험을 형상화하여 하나의 작품군을 이루지만, 각 작품은 각각의 특성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강항은 포로라고 하여 소극적으로만 있지 않고, 일본을 적극적으로 탐색하였다. 그리하여 『간양록』에는 일본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조선을 다스릴 계획이 제시되어 있다. 강항과 정희득이 일본의 허락을 얻어 고국으로 온 반면, 노인의 탈출은 목숨을 건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계일기』

에는 탈출 과정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조선으로 바로 가지 않고 중국으로 탈출함으로써 임진왜란에 참여한 삼국을 모두 경험하였고, 세 작품 중 유일하게 중국에서의 생활을 기록하고 있다. 정희득은 슬퍼하고 눈물 흘리는 본인의 감정에 치중하여 서술하였다. 그리고 『월봉해상록』에 피란을 떠나는 날부터 고향집에 돌아오기까지의 여정을 기록 하여, 세 작품 중 유일하게 포로 체험과 관련한 전 과정을 볼 수가 있다.

본 논문은 강항의 『간양록』, 노인의 『금계일기』, 정희득의 『월봉해상록』을 고찰하여, 작품의 기본적인 사항 및 특징을 파악한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은 작품을 소개하고 가치를 알리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세 작품은 문학적 가치와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후 이 작품들에 대한 다각적이고 심층적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姜沆, 『睡隱集』

魯認, 『錦溪日記』

魯認, 『錦溪集』

鄭希得, 『月峯海上錄』

강항, 『간양록』, 《국역해행총재》Ⅱ, 민족문화추진회, 1985.

노인, 『금계일기』, 《국역해행총재》Ⅸ, 민족문화추진회, 1982.

정희득, 『해상록』, 《국역해행총재》Ⅷ, 민족문화추진회, 1982.

김기빈, 「壬亂時 被俘 文人의 體驗的 文學의 考察-‘看羊錄’과 ‘月峯海上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회연구』 21, 한국한문학회, 1998.

김진규, 「임란 포로 일기 연구-‘금계일기’를 중심으로-, 『새얼어문논집』 10, 새얼어문학회, 1997.

김태준 외, 『임진왜란과 한국문학』, 민음사, 1992.

- 박세인, 「睡隱 姜沆의 시문학 연구-內傷의 표출 양상과 치유적 형상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소재영, 「壬亂被虜들의 海外體驗-錦溪日記·看羊錄·海上日錄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9·10, 겨레어문학회, 1985.
- 소재영·김태준 편, 『旅行과 體驗의 文學-일본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5.
- 이채연, 「看羊錄의 實記文學의 特徵」, 『한국문학논총』 13, 한국문학회, 1992.
- 이채연, 『壬辰倭亂 捕虜實記 研究』, 박이정, 1995.
- 장경남, 『임진왜란의 문학적 형상화』, 아세아문화사, 2000.
- 정두희·이경순 편,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 정훈식, 「月峯海上錄과 蘇武傳」, 『문창어문논집』 38, 문창어문학회, 2001.
- 최 관,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4.
- 황폐강, 『壬辰倭亂과 實記文學』, 일지사, 1994.

투고일 : 2009년 12월 31일, 심사 : 2010년 1월 11일~25일, 게재확정 : 2010년 2월 1일

<Abstract>

A Study on Records of Imjinwaeran POWs' Experience in Japan

Kim, Mi-sun

Imjinwaeran (Japanese Invasion of the Joseon Dynasty between 1592 and 1598) devastated the soil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aused huge pain to a slew of people. Whatever the experience with Imjinwaeran might be, it must have been shocking and tragic, but POWs who were taken to Japan should have been more painful. They should survive in Japan, and return home.

This study examined such records on the experience of Imjinwaeran POWs taken to Japan, as Gang Hang's *Ganyangnok* (Shepherding Sheep), No In's *Geumgyeilgi* (Diary of Peacock), and Jeong Hui-deuk's *Wolbonghaesangnok* (Moon Peak Sea). These three works concern Imjinwaeran and POWs' experience in Japan. The three authors, as POWs, experienced their lives in Japan. They were all literati hailing from the Honam region. In the second Japanese invasion of Joseon (the Year of the Rooster), they were captured and taken to Japan, and finally returned home in the similar period. Their works constitute precious historical materials, forming a particular group of works on POWs' overseas experience with each work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values. This paper examined the authors, their experience and travel to and in Japan,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ntent of the works to identify each work's basic information, characteristics, and values.

Gang Hang did not live a passive life as a POW, but positively explored Japan. This enabled him to write a wide range of information on Japan and schemes to govern Joseon in *Ganyangnok*. Gang Hang and Jeong Hui-deuk

were able to return to Joseon under the permission of Japan, while No In took chance to escape for his life. That is why Geumgyeilgi detailed his escape. He escaped to China before going directly to Joseon, allowing him to experience his lives in three nations which were involved in Imjinwaeran. Of the three works, only his work describes a life in China. Jeong Hui-deuk described his experience with more emotional and tearful feelings. He described the journey course from his refuge from the war to his return home, making it the only work of the three works to feature the whole course relating to POWs' experience.

Key words : Imjinwaeran, POW, true records, Gang Hang, No In, Jeong Hui-deuk, Ganyangnok, Geumgyeilgi, Wolbonghaesangnok